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8호 【루계 제26132호】 주체107(2018)년 9월 1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각 하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께서 언제나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근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나라의 통일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위업을 지지하고계시는 당신의 진실한 립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께 다시한번 승고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바 샤 르 알 아 싸 드

2018년 9월 12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한스 모드로브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도이췰란드좌익당 《로자 룩셈부르그》재단에서 보내여온 선물이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범한 통찰력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친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특혜중의 특혜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까지 담아 공화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하해와 같은 은총에 접하여 커다란 감격에 휩싸여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기적과 번영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속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투쟁로정을 깊이 새겨주시였을뿐아니라 1세들을 비롯한 유명무명의 애국적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하시고 그 어떤 명예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애족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있는 저희들에게 뜨거운 감사까지 보내주시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에 넘치신 은정이 가슴가슴에 스며들어 격정이 북받쳐오르고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세계를 휘락려락하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며 삼복의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궂은 길, 험한 길 가림없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속에서도 언제나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더없는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혁명적량심과 의리를 다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하문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할 불같은 맹세를 다집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령적인 축하문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70성상에 애국충정의 기념비를 높이 세운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가겠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답게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5대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한번 택한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겠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포들모두가 총련조직을 이역땅에서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 정든 집으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들로 다지기 위하여 동포생활과 애국사업의 기본단위인 지부를 일관성있게 중시하여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제시하신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동포들의 권익과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부흥속에 해외동포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언제나 심장속 깊이 새기고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위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함으로써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과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승화시켜나가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희망의 기둥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저희들의 최상최대의 념원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조선혁명의 최후승리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7(2018)년 9월 11일 일본 도꾜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한 긍지드높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공사성과 확대

단 천 발 전 소 건 설 장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를 안고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총작업갱공사 80%계선 돌파

단천발전소 기본물길굴건설을 위한 100여개의 작업갱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착공후 지난 8월말까지 건설장적인 총작업갱공사량은 80%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작업갱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시공단위별굴진실적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굴진성과가 계속 확대되도록 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 장병들과 함경북도려단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능률적인 송풍기들을 제작설치하고 구분대별, 대대별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맡은 작업갱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지난 한해 남짓한 기간 갱굴진실적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린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작업갱들을 최단기간에 결속하고 기본물길굴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최광윤소속부대 장병들도 반년 남짓한 기간에 수백m의 작업갱굴진실적을 기록하여 새로 기동전개한 작업갱구역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금강지도국려단과 룡산려단,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 전투원들도 해발고가 제일 높고 지질상태가 복잡하여 갱작업조건이 불리하지만 막아서는 난관을 결사의 의지로 극복하면서 굴진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8월말까지 총연장길이가 수십km에 달하는 작업갱들이 형성되여 최단기간에 기본물길굴도갱을 관통시킬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절벽에 있는 11-1갱으로 100hp권양기를 성과적으로 이동전개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단천용 렬한 공격전을 벌려 매일 수십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은 도갱굴진을 다그치면서 자체로 능률적인 스키프를 제작하여 모든 작업갱들에 설치하고 유압식착암기와 혼합물압송기, 버력적재기도 갖추어 갱확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흥지도국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천수백m의 기본물길굴도갱을 관통시킨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절벽에 있는 11-1갱으로 100hp권양기를 성과적으로 이동전개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단천용 렬한 공격전을 벌려 매일 수십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은 도갱굴진을 다그치면서 자체로 능률적인 스키프를 제작하여 모든 작업갱들에 설치하고 유압식착암기와 혼합물압송기, 버력적재기도 갖추어 갱확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00여km의 기본물길굴도갱 형성

작업갱들을 남먼저 형성한 시공단위들이 기본물길굴도갱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까지 건설장적인 도갱굴진실적은 매일 평균 100m에 달하고있다. 결과 건설장적으로 현재까지 총연장길이가 100여km에 달하는 기본물길굴도갱이 형성되였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갱작업의 기계화비중을 최대로 높이면서 굴진성과를 하루가 다르게 확대하고있다. 이들은 방대한 땅의 작업갱공사를 끝낸 기세로 20개소에서 좌우방향으로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 매일 수십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북대장병들은 도갱굴진을 다그치면서 자체로 능률적인 스키프를 제작하여 모든 작업갱들에 설치하고 유압식착암기와 혼합물압송기, 버력적재기도 갖추어 갱확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흥지도국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천수백m의 기본물길굴도갱을 관통시킨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절벽에 있는 11-1갱으로 100hp권양기를 성과적으로 이동전개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단천용 렬한 공격전을 벌려 매일 수십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부

정 론

더 힘차게 내달리자, 승리의 령봉을 향하여!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달리는 상원로동계급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며

뜻깊은 9월의 경축광장을 지나 승리자들의 대오는 더 높은 령봉을 향해 또다시 힘차게 나아간다.

위대한 조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찬란한 미래를 락관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의 심장에 박동치는 애국의 의지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 땅의 초소와 일터마다 나붓기는 이 글발,

그것은 승리에서 승리에로 나아가는 영웅조선의 기상이고 숨결이다.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력사의 분수령에서 혹풍쳐올라야 할 최후승리의 언덕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천만의 심장에 끓어솟는 애국의 의지, 불타는 열망이다.

1

여기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장에서 받드는 미더운 전초병들의 삶의 박동이 후덥게 안겨오는 창조의 전구이다.

낮에도 밤에도 잠들지 않는 소성로의 동음이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인양 가슴을 흔들고 조국땅 방방곡곡에로 즐기차게 흘러가는 세멘트폭포의 장쾌한 흐름이 더욱 눈부시게 번모될 조국의 래일을 벅차게 그려주는 금지의 세멘트생산기지,

언제 어느때나 높은 생산적앙양으로 조국을 받들어온 상원로동계급은 지금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력사우에 또 하나의 특기할 년륜을 긍지높이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증산 또 증산!

온 상원땅이 그것을 향해 불길친다. 여기서는 흐르는 시간도 그것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흔드는 충격적인 소식도 다름아닌 세멘트증산소식이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상원전구는 어디 가나 기적창조의 불도가니이고 증산돌격전의 드높은 함성이다.

상원석회석광산이 그 앞장에서 보란듯이 달린다.

세멘트생산의 주원료를 담당한 자기들이 앞서나가야 상원이 전초병의 역할을 다한다는것을 명심한 상원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매달 높이 세운 증산목표를 훨씬 넘쳐 수행하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때 삼청광산도 만만치 않은 기상으로 따라선다. 이들은 담이 커도 보통 크지 않다. 년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수할 목표를 내세운 삼청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상반년계획을 기한전에 초과완수한 이들은 그 기세로 지금은 년간계획완수의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온 삼청땅이 경쟁열풍으로 끓는다. 굴진소대들의 실적이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에 심려 시간이 다르게 키돋음할 때 채광소대들에서는 이전시기 한 교대에 보통 65광차의 광석을 끌어내던것을 지금은 90광차, 최고 100광차 끌어내고있다.

그 모든 열정과 기상을 다 안고 솟구치는 세멘트증산수자는 상원전구에 불어치는 증산열풍의 자랑스러운 얼굴, 눈부신 결정체이다.

증산돌격전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지난 8월에만도 당앞에 결의다진 증산목표보다 무려 수천톤이나 되는 세멘트를 더 생산하여 그야말로 증산 또 증산의 자랑찬 위훈을 긍지높이 떠올린 상원의 로동계급.

장하다. 얼싸안아주고싶다.

언제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을 받들고 세멘트증산으로 당을 옹위해온 상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여, 또다시 증산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용기백배 나아가며 시대를 고무하는 그대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보내는 다함없는 축하의 꽃다발 삼가 받으시라.

흐르는 공기도, 이어지는 분과 초도 증산의 숨결로 맥동치고 증산의 열기로 후더운 기적창조의 전구에 서니 생각은 마냥 깊어진다.

증산, 증산이란 무엇인가.

조국땅 방방곡곡에로 쉼없이 실려가는 상원의 세멘트는 그 대답이런듯, 저 세멘트 가닿는 곳마다에 창조와 건설의 숲은 더 무성하게 솟아나고 행복의 요람들은 더 눈부시게 빛나리라.

다 보이는것 같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이며 고난과 시련을 딛고 솟구쳐오르는 단천발전소건설장의 장쾌한 언제들과 문명국의 래일을 눈부시게 그려주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우리 원수님의 삼복철강행군길에 잇닿은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세멘트를 가리켜 건설의 탄약이라고 한다. 하다면 창조와 건설의 소중한 병기창을 지켜선 상원의 로동계급, 한톤의 세멘트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진한 피와 땀은 그대로 조국번영의 주추이고 밑뿌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증산은 조국에 바치는 이 나라 공민의 가장 깨끗한 량심이고 열화같은 진정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심장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의 값높은 삶의 증표이고 귀중한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고귀한 인생의 열매이다.

돌이켜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력사는 이 나라 공민들의 애국헌신의 력사, 증산투쟁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해방후 빈터우에 인민의 새 나라를 안아올린 건국의 첫 세대들을 생각할 때 온 나라 강산을 휩싸안았던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이 떠오른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 없는 페허우에 천리마타고 나래쳐오른 영웅조선의 기적도 바로 강재 1만톤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강선로동계급의 무비의 위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당이 인민을 증산에로 부르고 시대와 혁명이 증산돌격전의 뢰성을 높이 울리는 때는 조국이 더 높이 비약해야 할 때, 혁명이 또 한번 상승해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이룩한 우리 조국의 승리는 참으로 크다.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력사의 분수령, 이 뜻깊은 시기에 위대한 당은 천만군민을 경제건설대진군에로 불렀다.

맑고 푸른 하늘아래 마침내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는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안아올린 우리의 전인민적 창조대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위대한 당의 구상을 빛나게 완철할 천만의 신념과 의지는 바로 증산돌격전의 뢰성으로 이 땅을 진감하고있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증산 또 증산, 이것이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창조의 숨결이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최후승리의 령봉에로 안아올릴 애국의 총돌격전이기에 천만군민은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바로 그 앞장에 우리의 미더운 상원의 로동계급이 서있는것이다. 어제날 강철로 당을 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사회주의수호전의 봉화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앞장에서 따라섰던 자강도인민들처럼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세멘트증산으로 받드는 상원의 로동계급.

상원의 로동계급이 이룩해가는 증산의 수자도 놀라울고 창조의 전구를 휩싸안는 증산의 열기도 벅차다. 그러나 상원의 숨결이 그리도 소중하고 위력한것은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 조국땅을 진감하는 증산돌격운동의 깊은 의미와 진모가 력력히 어려있기때문이다.

기어이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증산돌격전에 맥동치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남의 덕으로 일시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기의것, 영원한 자기의것, 더 큰 승리를 위한 비약의 발판으로 되지 못한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진보와 혁신, 그것에 기초한 증산만이 조국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억척의 도약대, 상승의 든든한 활주로가 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상원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불길을 기발처럼 날리며 증산돌격전의 파갈한 뢰성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자력갱생, 우리 혁명의 백승의 철학이고 진보와 번영의 방식인 이 위대한 창조정신이 오늘도 상원의 기적과 위훈창조의 위력한 불씨로 활활 타오른다.

여기는 상원로동계급이 걸어온 긍지높은 력사를 보여주는 연혁소개실, 그앞에 세워진 의미깊은 조각이 눈길을 끈다. 《항일빨찌산영웅들》-도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표지에 새겨진 이 뜻깊은 화폭이 조각으로 형상된 그옆에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항일의 연길폭탄이 형상되여있다.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제힘으로 승리를 안아오는 조선혁명가들의 고귀한 정신이 바로 상원의 영웅적행로를 관통해온 빛나는 제부임을 가슴치게 새겨주는 참으로 뜻깊은 화폭이다.

우리에게는 상원전구가 마치 오늘의 밀림속의 병기창으로 안겨온다.

상원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력갱생위훈담들은 얼마나 격동적인가.

1호성산세멘트개건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걸음마다 앞을 막아서는 무수한 시련과 난관들을 제힘을 굳게 믿고 떨쳐일어나 교본에도 없는 창조의 위력으로 뚫고나간 이들,

소성로의 살이라고 할수 있는 내화벽돌생산도 이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종유와 재끗이 결별하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생산체계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그뿐인가. 자기들이 생산한 내화벽돌을 심장이 쿵쿵 뛰게 하는 대담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로보수에 리용하던 위훈담은 들을수록 격동적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만장약된 그 한장한장의 내화벽돌들이 우리에게는 오늘의 연길폭탄처럼 안겨온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수년간 이들을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에로 떠밀어준 자력갱생정신은 바로 고난속에서도 상원의 힘을 증대시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였고 생산장성의 활력소였다.

여기서는 수입이라는 말, 의존이라는 말이 가장 수치스러운것으로 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불길치는 상원땅은 오늘도 그 자랑스러운 전통과 기질로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폭풍노도치고있다.

우리의 증산돌격전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투쟁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증산의 든든한 담보를 마련해가는것, 이것이 상원의 증산열기에서 우리가 안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기업소의 그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높이 정한 증산목표를 수행하는 드세찬 생산돌격전과 함께 증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병행하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주원료를 담당한 상원석회석광산에서 매달 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더 많은 광석밭들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를 놓치지 않고 따라세우고있을 때 삼청광산의 일군들은 굴진을 3년, 5년이상 앞세우며 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하여 생산의 주요공정들을 담당한 단위들에서도 현행생산과 함께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생산장성의 담보들을 전망성있게 마련하고 실속있게 추진해가고있다.

그렇다. 결코 힘차게 내달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조국의 더 밝은 래일, 더 힘찬 위력으로 질풍노도칠 이 땅의 래일을 환희롭게 안아보게 되는 창조와 위훈의 전구,

그래서 더욱 소중한 상원의 모습이다. 바로 그래서 그처럼 위력하고 귀중한 상원의 증산돌격전의 드세찬 열풍, 파갈한 기상인것이다.

2

불길에는 불씨가 있다.

아직은 어려움도 많고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는 난관들도 무수하지만 그 모든것을 산산이 불사르며 조국땅 어디서나 세차게 타오르는 증산돌격전의 우렁찬 뢰성, 그것은 진정 어디에 억센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낮에도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상원땅, 깊은 밤 소성로의 동음을 지켜 순회길을 이어가는 한 기대공이 우리앞에 서있다.

어깨에 멘 공구가방, 손에 펼쳐든 순회일지가 눈길을 끄는데 기대를 는 동자처럼 아끼며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보석같은 그 마음이 불처럼 토하는 진정에 실려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상원로동계급이 증산돌격전의 맨 앞장에 서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자나깨나 심장의 피를 끓게 합니다. 한톤의 세멘트라도 더 생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다. 땅밑에서, 땅우에서, 기대결에서 세멘트증산을 위해 백옥같은 진정을 바쳐가는 온 상원땅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세차게 고동친다.

생각도 깊어지는 상원의 밤, 높이 솟은 싸이로들과 에열탑들, 그물처럼 뻗어간 관들이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상원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의미깊게 안겨오는 하나의 부름이 있다.

헐떡!

최근년간에 창작된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연극의 이 제목, 소성로가 심장이라면 그와 이어진 크고작은 설비들은 마치 유기체의 피줄과 같다. 련속흐름공정으로 이루어진 그 수많은 생산공정들이 하나의 숨결로 고동칠 때 소성로는 힘찬 동음을 울릴수 있는것이다. 하나 혈맥이라는 부름에는 비단 그런 뜻만이 담긴것이 아니다.

위대한 심장과 하나로 이어진 상원로동계급의 긍지높은 인생,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기업소의 명예지배인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조국청사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온 이들의 긍지와 자부가 바로 이 뜻깊은 부름속에 력력히 고동치고있다.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언제나 위대한 그 손길 꼭 잡고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상원의 로동계급,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지난 수년간 상원의 세멘트생산실적은 끝없는 상승주로를 새기고있다.

당창건 70돐이 되던 2015년에는 결사의 각오로 떨쳐일어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고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 련속공격전으로 빛나게 기록된 2016년에 상원은 또다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그 전해보다 더 많은 세멘트증산으로 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하고 만리마시대의 진형단위로 자랑떨치였다. 우리 조국력사에 뜻깊은 해로 기록된 지난해에도 이들은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돌파하는 눈부신 승리를 안아왔다.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였는가. 우리의 사회주의전진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였던 그 어려운 나날들에 과연 상원의 로동계급은 무슨 힘으로 그렇듯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며 련속 통장훈을 부를수 있었는가.

비결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언제나 어느때나 상원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상원이 새겨온 기적창조의 나날들은 다름아닌 상원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실록, 믿음의 실록이다.

이들이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면서도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증산투쟁에 자진하여 떨쳐나섰던 때에는 정말 용하고, 간단한 량이 아닌데 좀 고생스러울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 속담에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좀 고생하면서 힘든 고비를 이겨나가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누구나 상원의 세멘트증산소식에 기쁨을 금치 못할 때에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세멘트를 생산하여 여러 단위들에 제때에 보내주고있는데 지금 자신의 마음은 삶을 베어서라도 그 기업소를 도와주고싶은 심정이라고 그리도 불덩이같은 진정을 터치신분.

상원의 로동계급이 막아서는 시련을 걸음마다 무시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높이 지핀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실지 나를 도와주는 기업소, 나에게 힘이 되는 기업소라는 참으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믿음은 인생의 제일 큰 힘이다. 할진대 그렇듯 위대한 믿음을 받아안은 상원로동계급의 심장 어찌 보답의 맹세로 불타오르지 않으랴.

이 한몸 소성로의 불길이 되여서라도 더 많은 크링카를 생산하자!

이것이 온 상원땅을 휩싸안은 증산열풍의 뜨거운 불씨이고 진함없는 열원이다.

언제나 우리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속에 살아온 상원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지난 7월은 또 하나의 사연깊은 달이다. 온 나라를 경제전설대진군에로 부르신 우리 원수님께서 상원의 로동계급에게 증산을 호소하시며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참으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것이다.

상원이 보답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켜선 소성공들로부터 카두녀성들에 이르기까지, 정련한 기술자로부터 책임일군에 이르기까지 상원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답의 열기로 심장 불태우며 증산돌격의 총공격전에 어깨걸고 나섰다.

우리 원수님의 믿음을 삶의 활력소로 간직한 상원로동계급은 당을 받드는 마음도 남다르다.

찌는듯 한 폭염속에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원수님의 삼복철강행군소식이 천만의 심장을 후덥게 적시던 지난 8월, 이들은 결코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세월을 우러르며 격정의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강행군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어 8월증산목표를 기어이 완수하자!

증산돌격전의 불길이 삼복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상원땅을 휩싸안은 그때 결사옹위의 신념으로 달아오른 창조의 전구에 활활 타래쳐오른 불덩이같은 이 진정, 바로 그것이 10여일이 걸린다는 로보수를 불과 며칠만에 끝내고 또다시 소성로의 불길을 지펴올리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고 당앞에 결의다진 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위훈을 떠올린 밑뿌리였다.

우리의 증산열풍이 그리도 귀중한것은 그것이 단순한 생산수자이기 전에 바로 천만의 심장에 불타는 당중앙옹위의 신념이고 의지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광명한 래일에로 혹풍노도칠 인민의 심장의 분출, 그것이 이 땅을 휩싸안은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고 그 진함없는 원천이기에 고난과 시련을 짓무시며 더 밝은 래일을 앞당기는 우리의 전진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천만군민이여, 모두다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당이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따라 경제건설대진군의 돌격전에 더 힘차게 떨쳐나서자.

오늘의 증산돌격전의 앞장에는 붉은기 펄펄 날리며 기적창조의 령봉에로 대오를 이끌어야 할 미더운 기수, 혁명의 전위들이 있다.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상원에 가게 되면 기쁘게 안아보는 광경이 있다.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의 문을 열고 고락을 함께 하는 일군들의 모습이다.

증산의 목표가 높을수록 대중의 마음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자.

이것이 상원의 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안아보게 되는 소중한 진리이다.

깊은 밤 소성로의 동음을 지켜 량심의 순회길을 이어가는 기대공들의 곁에도,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찾아 어려운 탐구전을 벌려가는 기술자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일군들이 함께 있다. 생산수자를 론하기 전에 대중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며 아파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상원의 세멘트증산수자는 날을 따라 오른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다. 생산의 주인도 대중이고 설비관리의 담당자도 대중이며 증산의 예비도 바로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일군들이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달려있다는 자각으로 심장 불태우며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는 위력한 밑불이 되고 송풍기가 되자.

상원에는 세멘트증산수자와 함께 힘차게 오르는 또 하나의 증산수자가 있다. 후방사업실적이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높을수록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깊이 관심하는것이 후방사업이다.

와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터치는 평탕오리공장은 최근시기 또다시 자랑스러운 변모를 이룩하였다. 산허리를 통채로 깎아 텅지른 후방기지를 일떠세우고 보기에도 흐뭇한 오리풍년, 온실남새풍년, 버섯풍년을 마련하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양어풍경을 펼쳐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주는 기업소의 당일군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돋보이는 일본새인가.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상원땅에는 어디에나 불고있는 또 하나의 세찬 바람이 있다.

과학기술중시열풍이다. 과학기술을 떠난 증산을 생각할수 없고 증산의 열쇠는 과학기술중시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누구나 피타게 과학기술을 터득하며 첨단을 지향하는 상원의 로동계급,

모르고 하는 일과 원리를 깊이 파악하고 하는 일의 결과는 같지 않다. 전문기술인재도 좋지만 종업원들 모두가 기술인재가 될 때 그 위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런 속에 상원땅이 자랑하는 영웅작업반장인 림봉운동무의 모습이 의미깊게 안겨온다. 공장이 자랑하는 로력혁신자인 그는 또한 누구나 감탄하는 기술혁신선구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가 출연하는 기술전습회에도 참가해보았다. 자신이 맡은 분야의 첨단기술들을 피타게 터득하며 높은 실력으로 대오를 이끄는 영웅작업반장, 그의 모습은 오늘의 위훈은 과학기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고 과학기술을 떠난 그 어떤 창조의 기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힘있는 증명이다.

우리의 증산이 위력한것은 집단적영웅주의를 불씨로 하는 불길이기때문이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삼청광산이며 일출봉광산, 화천탄광을 비롯한 상원전구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보게 되는 이 글발이 안겨주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소성로에 심장의 박동을 잇고 오직 증산, 증산을 위해 뜻과 마음을 합쳐가는 상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지배인과 당위원장, 기사장의 3위1체가 확고히 보장되니 일터에는 기적창조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고 뛸지 못할 난관이 없다.

천만군민이여, 어디서나 누구나 상원의 숨결, 상원의 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자.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온 세상이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높이높이 안아올리는 오늘의 증산돌격전에서 선구자가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위대한 조국의 승리와 번영에 바쳐진 삶처럼 아름답고 보람넘친 인생은 없다.

당의 부름에 증산 또 증산으로 화답하며 더 밝고 창창한 래일을 앞당겨가는 우리의 앞길에 눈부신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모두다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방 성 화

남포항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생산장성의 예비-혁명적열의

일군들의 조직적수완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는 능력이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일군들이 대중의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에 달려있다.

대중의 혁명열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일군들은 사업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늘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옳은 해결방도를 세우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열이다.

어느때, 어떤 환경에서도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의 소유자인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면 못해낼 일이 없다.

훌륭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의 교양자, 조직자인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당의 방침을 더 잘 관철하려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것, 바로 이것이 대중의 마음을 알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묘술을 찾는 기본열쇠이다.

가까이 있어야 정이 통한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군중을 알자면 그들속에 들어가서 일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과 생활에서 절린 고리가 무엇인가도 똑똑히 알고 풀어줄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그들의 심장에 혁명열이 더욱 뜨겁게 끓어번지게 할수 있다.

언제인가 어느 공장의 일부 일군들이 아래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 한 작업반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설비도 오랜 기일이 지나서야 해결해준 현상이 나타났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런 무책임하고 관료주의적인 사업작풍을 없애지 않고서는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일수 없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혁명가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리먹일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중이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킬수 없게 할뿐아니라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하는 관료주의,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가지지 못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면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관료주의는 당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에 티가 앉게 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한다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떨어뜨리는 해독행위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숭고한 의지를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일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량 순

동력기지들의 정비보강과 기술개건을 다그쳐 증산돌격운동에 더 큰 활력을!

발전설비들의 정비보강과 전력증산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드센 박차를 가하자면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대고조전투장들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는데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국장 허룡호: 현시기 전력생산을 늘이자면 동력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발전설비들의 정비보강과 기술개건을 다그쳐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어 이미 조성된 발전능력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대보수 및 중보수과제를 알당겨 완수하여야 겨울철에도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성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발전설비대보수를 보다 질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기술개조를 다그쳐 종전보다 호기당 출력을 더 높이며 수력발전소들의 설비, 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여 수력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에 새로운 발전설비들을 증설 및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기자: 지금 화력발전부문에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부국장 류기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발전설비대보수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얼설비보수직장과 타빈보수직장, 미루보수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방대한 6호기와 8호기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은 충천한 기세로 가까운 시일안에 7호기대보수를 다그쳐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특히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발전설비들을 증설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여러대의 보이라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책임부원 허홍숙: 한대의 보이라대보수과제를 완수한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급수뽐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새로운 증기압력자동조절체계를 받아들이였다.

동평양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여러대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끝낸 기세로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지난 8월까지 10여대의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대보수를 질적으로 해제끼고 50여개의 공기예열기들도 새로 교체하여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금 각지 화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기어이 앞당겨 완수할 열의안고 대보수전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기자: 나라의 믿음직한 전력생산기지인 태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도 발전설비와 각종 구조물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보강하는것이 증산의 열쇠로 된다고 본다.

국장 주용: 물론이다. 우리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정비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허천강발전소와 수풍발전소, 희천발전소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10여대의 수차발전기와 각종 변압기, 차단기대보수과제를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장진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와 대동강발전소, 삼수발전소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수차발전기대보수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40여대의 수차발전기들을 질적으로 대보수하고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기사장 최삼룡: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저수지준첩과 언제보강타입, 수로 및 도중취수구의 보수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차게 내밀고있다.

수력발전소들에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와 려자기, 각종 보호장치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며 수력발전소들의 통합생산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종전보다 발전효률을 더 높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허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효률높은 새 수차들을 도입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서두수, 위원, 태천, 부전강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30여대의 변압기와 70여대의 차단기대보수과제를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발전설비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국장 허룡호: 우리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발전설비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높이 세운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5개년전략고지에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겠다.

본사기자 정순성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위한 일

◇ 지금 대고조전투장 어디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전력이다.

전력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자면 각지 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올해 계획된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얼마전 산세험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힘을 넣어 해제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고 전력문제해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거세찬 활력을 더해주고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다.

◇ 전력공업부문을 적극 도와주고 지원하는것은 곧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위한 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나라가 현대적혁신의 불길높이 짧은 기간에 화력발전량을 끌어올리였던 훌륭한 경험이 있으며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연료와 설비, 자재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그른하게 갖추어져있다.

지금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도 동력기지들에 비약의 승걸을 더해줄 드높은 열의안고 화력탄수송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바로 이들처럼 모두가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연료와 설비, 자재보장과 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인민적인 투쟁을 벌릴 때만이 빠른 시일안에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수 있다.

◇ 총집중, 총동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오늘의 경제사업에서 전력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특히 현판부문, 단위들에서 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료를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무조건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림업, 금속, 기계,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전력과 화력탄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통발나무와 각종 설비, 부분품 및 부속품, 철판, 발파자재 등을 일정계획대로 어김없이 보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화력탄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발전소와 탄광로동계급의 후방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두다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현대적혁신과 로력적, 물질적지원의 불길높이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숭고한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자!

견인불발의 의지로 돌파구를 열어간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

수도의 대동력기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큰 능력의 산소공장건설, 타빈제통의 현대화, 보이라의 기술개조 등이 진행되는 주요전투장마다에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9월의 대축전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기세로 불꽃튀는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앞두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 행정, 기술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지난 시기 전력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 생산태가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어 뚜렷한 전투목표가 세워졌다.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놓고보니 방대한 공사량이였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전에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억척불변의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즉시에 모든 일군들이 현장들에 내려가 전투과지를 차지하였다.

전투개시의 신호탄은 산소공장건설에서부터 날아올랐다.

책임일군들은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배리 발걸에도 나섰고 건설자들과 현장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흘리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기술일군들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그런데 산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와 설비해결이 난문제로 나섰다. 방도는 이미 있던 설비를 살려내는것이였다.

공무직장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전투가 벌어졌다.

철아전투로 피로가 집쌓였지만 로동자들은 기대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낸 부속품만 하여도 수천점에 달하였다.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설비들이 하나, 둘 마련되였고 드디여 시운전의 날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시원치 못하였다.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기술적문제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것이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기며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섰다.

현장에서 진행한 기술협의회만도 수십차에,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실패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어렵게만 생각되던 기술적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였고 능력이 큰 산소생산공정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3차원공기려과장치를 6호보이라에 설치, 5호타빈 대보수, 4호와 8호보이라들에 국산화된 굴음퀘도 설치…

기술개조된 설비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9월의 대축전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높이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김학철

새형의 수차를 제작설치

허천강발전소에서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호발전소에 필요한 새형의 수차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여 종전에 비해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부쩍 높이고 전력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이 2호발전소에 새로 도입한 새형의 수차들은 종전의 주물품대신 형단조에 의한 방법으로 부분품을 제작한것으로 하여 발전설비의 기계적성질과 성능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결과 이곳 발전소에서는 지금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력을 더 생산하고있다.

이 성과는 허천강발전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이 안아온 결실이다.

허천강발전소 일군들은 전력공업부문에서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자체의 기술력량에 토대하여 새형의 수차들을 제작도입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하였다. 이들은 종전에 쓰던 수차의 부분품을 개조하여 실천에 도입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고 각종 소재들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갔다.

전기기계직장과 기술혁신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큰 몫을 맡아 해제꼈다.

당조직의 지도방조밑에 그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각종 부속품들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가공해냈다.

설비제작전투가 결속된데 이어 지난 8월말부터 2호발전소에서는 마지막 발전기수차를 조립하기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조립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여러대의 수차들을 조립완성한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설비부분품해체작업을 단 2일만에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 기세로 설비조립을 훨씬 앞당겨 끝낸 목표를 내세우고 매일 계획을 1.5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허천강발전소 전기기계직장과 2호발전소 보수작업반, 운전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새형의 수차조립을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본사기자 지원철

전압단계를 높여 얻은 예비

경원군송배전소에서

경원군송배전소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무엇보다 주목을 돌린것이 전압단계를 높이는 기술개조사업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을 효률이 높은 발전설비들로 교체하고 송전계통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면 몇개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전력예비가 나옵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군안의 송배전계통의 전압단계를 종전의 2배로 높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먼저 읍지구송배전망을 개건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백수십대의 변압기개조, 수천개의 애자와 완목, 수십대의 콩크리트전주대를 교체해야 하는 등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갔다. 요구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애자와 전주교체 등 배전선로들을 정비보강하면서 합리적으로 송전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백수십대에 달하는 변압기개조전투를 동시에 벌려나갔다. 하여 자체로 단 몇달동안에 읍지구 배전계통개건공사를 결속짓게 되였다. 이와 함께 수자식온도수감장치를 개발도입하였으며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세워 부하상태를 구체적으로 감시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실정에 맞게 배전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생산된 전력이 효과적으로 공급될수 있게 하였다.

절약은 곧 증산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전력예비를 얻어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민 결과 실리는 컸다. 읍지구에서만도 전력의 도중손실을 종전보다 1/4로 줄이였다.

우리에게 이곳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나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아껴쓰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때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원군송배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미 마련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없애고 더 많은 전기절약예비를 찾아내여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홍성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설 때

증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증산군에서 연 100여km에 달하는 수십개의 크고작은 하천정리와 수십리구간의 해안방조제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와 함께 갑문에 권양지구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제때에 뽑을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차례 내린 큰비에도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 성과를 두고 누구나 군일군들이 당의 뜻대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린 결과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바다가에 위치하고있는 이 군에는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들이 적지 않다. 이런 자연지리적조건으로부터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오면 시간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넘쳐나고 바다수위까지 올라 하천들의 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가 물에 잠기군 하였다.

책임일군들은 큰물피해막이이자 다수확이라는 관점에서 올해에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큰물피해의 근원부터 없앨것을 결심하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군안의 농경지들에 떨어나간 수십개의 하천들의 물은 무본천을 비롯하여 바다와 련결된 하천들에 모이는데 바닥이 낮고 곧추 펴이지 못하여 물통과능력이 낮았다. 또한 오래전에 설치한 이압제염갑문 설비들은 낡아 물을 미처 뽑지 못하고있었다.

군책임일군들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록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올해에는 이 문제를 키어이 풀 결심을 굳히였다.

그리하여 비교적 물량이 많고 바다와 련결되여있는 하천들에 대한 정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이압제염갑문의 권양설비들을 개조하자는데로 의견을 합치였다.

당장 긴 구간의 하천정리공사를 진행하자고보니 로력이 부족하였다. 고온피해막이와 풀베기, 비배관리 등 군에서 벌려놓은 일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짧은 기간에 하천제방보수공사와 바닥과기공사를 끝내야 하는것도 문제였지만 권양설비를 개조하는것이 더 큰 문제였다.

사실 권양지구를 도입하면 발동기를 돌리지 않고서도 종전보다 몇배나 적은 인원으로 수문을 들어올릴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일부 일군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들은 무게가 1t이상 되는 수문을 어떻게 지구를 리용하여 들어올리겠는가,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놓지 말고 발동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오늘날 당정책관철에서 경계할것은 보신주의이다. 보신주의에 빠지면 사업에서 적극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게태주의에 빠지게 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군당위원장은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남만 쳐다보게 된다고 하면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로 일군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한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필요한 권양지구를 해결하기 위해 뛰였다.

드디여 지구로 수문을 들어올리기 위한 시험이 진행되였다. 사람들은 적은 인원으로 육중한 수문을 순간에 들어올리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 사실앞에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서면 방대한 공사과제도 제기일에 끝낼수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작전만이 아니라 집행의 첫자리에 자기를 세울줄 아는 야전형의 지휘관이 될 때 실천력이 완강해지는 법이다.

군책임일군들은 수문들에서 물뽑기대책을 세운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하천정리를 통이 크게 내밀기 위한 사업에도 몸을 내댔다.

중소하천들에 대한 정리는 방대한 구간의 하천들의 바닥과기를 해야 하는 아름찬 공사였다. 계산해보니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시작한 일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사장 그 어디에서나 전투조직과 지휘가 인민군대식, 화선식으로 진행되였다.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그날 과제는 그날로 집행되였다. 이 소식에 접한 군안의 주민들까지 떨쳐나섰다.

책임일군들은 하천정리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바닥과기에 필요한 굴착기와 운수수단을 보장해주면서 공사를 책임지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어느날 무본천바닥과기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여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때에도 책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지시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며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이에 고무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밤을 밝히며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한주일동안에 1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하천을 번듯하게 정리하였으며 련이어 긴 구간의 해안방조제정리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큰비가 내렸지만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었다.

군의 경험은 큰물피해막이를 당정책용위전으로 보고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해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작업반의 보배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맡겨진 혁명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라선시 선봉수산사업소 공무동력작업반 선반공 장천명동무도 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그날부터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까지 30여년을 그는 선반과 함께 일해오고있다.

어렵고 힘든 일감이 제기될 때마다 스스로 맡아안고 제치있게 제품을 가공해나가는 그의 일본새는 언제나 대중을 감동시키고있다.

얼마전 물고기생산을 위한 부속품가공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그는 기발한 착상으로 짧은 기간에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짬시간마다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사색을 기울인 그의 헌신적노력은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이게 한 밑바탕이였다.

하기에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새로운 착상을 척척 내놓는 장천명동무를 가리켜 작업반의 보배라고 존경하고있다.

오늘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순결한 량심으로 삶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정순

증산돌격전의 열풍속에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보통강반에 차넘치는 기쁨과 랑만, 행복의 웃음소리

평양시체육촌을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전 보통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평양시체육촌을 찾았다.

청류관을 지나 보통강의 흐름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느라니 보통강려관 맞은편에 새로 건설된 시체육촌이 한눈에 안겨왔다.

한폭의 그림처럼 바라볼수록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체육촌으로 들어가는 새로 건설한 다리입구에서 시체육촌관리소 소장 원광혁동무를 만났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란간에 이채로운 꽃화분들이 즐비하게 걸려져있는 화려한 다리를 지나 체육관으로 향하였다.

어서빨리 들어가보고싶은 충동을 자아내는 체육관의 외형도 멋있었지만 겉불안이라고 내부 또한 희한하였다.

정갈하게 꾸려진 홍정면에는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우리는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홀을 지나 1층에 손색없이 꾸려진 선수랑의실과 남녀목욕실, 기재보관고를 돌아보고 2층에 올라갔다. 2층에서는 장기와 바둑애호가들이 체육오락실들에서 승부를 겨루고있었다.

그들을 진지한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경기홀에 들어섰다. 수백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홀에서는 마침 평양체육단 롱구선수들의 혼련경기가 백열전을 이루고있었다. 멋들어진 득점으로 련속 경기성적을 올리는 랑림선수들의 얼기면 경기모습에 심취되여있는 우리에게 원광혁동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 이처럼 훌륭한 체육관을 한개 구역의 힘으로 일떠세웠다고 하면 믿기가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는 우리에게 체육관을 건설하던 나날에 있었던 감동깊은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정천구역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축대만이 무성한 감탕우에 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 달려나온것은 3년전 11월이였다고 한다.

그때 구역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시로 빠져나오는 지하수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리면서 새로운 시공방법을 도입하여 기초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건축공사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덧집을 짓고 불을 피워 온도를 보장하면서 순간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소장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짧은 기일안에 기어이 체육관건설을 끝내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창조와 위훈의 낮과 밤을 이어온 정천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었다. 우리는 깊은 감동속에 모든 조건이 원만히 구비되여있는 3층의 탁구장과 육체훈련실, 씨름장을 돌아보고 체육관을 나섰다.

현관을 벗어나니 아득하게 펼쳐진 야외경기장들이 눈앞에 안겨왔다. 채양을 씌운 번듯한 관람석까지 있는 인공잔디축구장과 륙상주로도 멋있었지만 야외롱구장과 배구장, 정구장, 바드민톤장, 씨름터도 그야말로 멋졌이였다.

또한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와 휴식구들옆에 일매지게 펼쳐진 푸른 잔디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풀판목들이 체육촌의 풍경을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시안의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을 비롯한 근로단체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창조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어 체육인숙소를 찾았다. 천수백㎡의 면적에 4층으로 건설된 체육인숙소는 척 보기에도 체육인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라는것이 확연하게 알렸다.

《여기가 중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떠세운 체육인숙소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소장 원광혁동무는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체육인숙소에는 현재 평양체육단 선수들이 생활하고있는데 한번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라며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 미소에는 자기의 말보다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것이 더 낫다는 은근한 암시가 깔려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체육인숙소에 들어가 체육인들의 궁지에 넘친 이야기를 들으며 어려곳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중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과 시안의 일군들의 지성이 체육인숙소의 모든 곳에 속속이 배여있었다.

우리는 체육인숙소를 나와 보통강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일본새가 가슴뜨겁게 어려있는 뽐프장을 돌아보고 수상화초공원을 찾았다.

송형이는 보통강에 두둥실 떠있는 수상화초공원에서는 홍초와 만수국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초들과 버이삭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정말 보는것마다, 듣는것마다 감탄을 자아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깃들자 희한한 불장식이 온 체육촌을 하나의 신비경으로 만들어버리였다.

시체육촌은 낮보다도 밤풍경이 더욱 멋있는듯싶었다. 불수록 희한하고 황홀한 시체육촌을 떠나며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 당의 온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체육봉사기지에 수도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될것이라고.

글 특파기자 최수복
사진 리명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리영생학부장, 맹북실강좌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과 윤태길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재일동포자녀들의 자애로운 학부형이 되시여 이역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박준영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일행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는 14일 한스 모드로브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한스 모드로브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태양의 성지를 찾은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손님들은 또한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평양화장품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일행 개선문 참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였다.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북남고위급회담 우리측 단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남측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소식에서는 축하연설과 기념사가 있은 다음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현판이 제막되였다.

우리측 단장과 남측수석대표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로씨야에 갔던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대외경제상 김영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4차 《동방경제연단》에 참가하고 1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외경제성 부상 리광근동지와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행사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행사에 참가하였던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대표단,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에콰도르 볼리바르주 에체안디아시대표단,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대표가 1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일행이 14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6일과 22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첨단돌파전의 기수가 될 유능한 실천형인재들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에서 첨단수준의 실험장치들을 련이어 개발하고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며 교수경연을 특색있게 조직하는 과정에 교육의 질을 급속히 개선해나가고있다.

며칠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성과의 비결이 학부일군들이 학생들을 첨단돌파전의 기수가 될 실천형의 인재들로 육성하기 위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온데 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일류급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관리를 개선완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단위에나 자기 발전을 위한 목표가 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들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쉽게 만족을 느끼게 된다면 조국의 래일을 담보해야 할 교육사업은 그만큼 발전속도가 떠지게 된다.

올해의 첫날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이곳 일군들은 이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였다. 여러해전에 새로 조직된 학부의 일군들앞에는 수많은 일감이 놓여있었다. 실천교육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학부교육의 특성에 맞게 실험실습설비들을 갖추고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했다.

그때 일군들은 교원, 연구사들의 재능에 맞게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많은 도서들을 파고들면서 기계설계를 하고 련관단위들의 방조속에 현대적인 실험장치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대학적인 새 학년도교수준비전시회에서 여러차례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많은 학과목들을 새롭게 개척하여 교육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지난해부터는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3호교사에서 교육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조건과 환경개선문제도 해결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뜨이게 높아진 교육수준을 놓고 만족해하고있었다. …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피타는 사색과 실천을 따라세워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충직하게 받들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일군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하다면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내걸고 사업을 진개할것인가.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학생들은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첨단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과헤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의 존엄과 명예를 자랑높이 떨쳐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이 되새겨졌다. 그렇게 하자면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했다.

일군들은 학부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투시해보았다.

전공기초과목강의는 실험실습과 밀접히 결합되여 큰 은을 내고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공과목은 많은 경우 리론교육에 치우쳐있었다. 과정안자체도 전공과목을 떼온 후 전공실험을 하게끔 되여있다보니 인식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수 없었고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데서도 일정하게 제한을 받고있었다. 전공강의와 전공실험을 결합시키자면 결정적으로 많은 실험장치가 필요했다.

그때 이곳 일군들은 개별적인 실험에 필요한 장치제작에 집중하던 종전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실험을 진행할수 있는 첨단수준의 실험장치들을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까지 매 강좌에서 첨단수준의 실험장치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을 조직하였다. 그러고 교원, 연구사들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아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도록 사상교양사업도 짜고들고 토론도 거듭해주었으며 조건보장사업도 따라세웠다. 이렇게 되여 강좌마다 교원, 연구사들뿐만아니라 박사원생들까지 인입하여 실험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학부에서는 지능조종학강좌와 체계관리학강좌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한번 본적도 없는 첨단수준의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업은 걸음걸음 실패를 동반하였다. 하지만 한사람도 주저앉지 않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얼마후 지능조종학강좌에서는 직각자리표로보트, 청소로보트를, 체계관리학강좌에서는 통합생산체계종합실험실습장치를 높은 수준에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학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강좌들에서도 본받아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결과 많은 현대적인 실험장치들이 개발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계속하여 학부에서는 강좌마다 실험탁과 실험장치들을 그른하게 갖춘 전공실험실들을 더욱 훌륭히 꾸려놓았다.

학부에서는 지금 교원이 강의시간에 실험에 대한 목적과 그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만을 주고 학생들이 자체로 실험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러고 실험조끼리 토론을 심화시키면서 그 과정에 높은 연구능력과 실천능력, 창조능력, 사색능력, 전수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강의시간에 실험도 하면서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하고 첨단수준의 실험장치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학생들은 세계와 경쟁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게 되였다.

성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김영일, 안창성, 한성준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일류급학부건설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기 위한 현상응모를 조직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요강을 구체적으로 작성포치하고 대중을 한사람같이 발동시켰다. 결과 강의와 실천실기, 실험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법, 첨단수준의 실험장치에 대한 착상, 강의와 전공실험을 결합한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 등 수십건의 가치있는 안들이 제출되였다.

학부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나갔다. 결과 전공강의와 전공실험을 결합하여 학생들의 착상, 설계, 검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방법, 전자공학과목강의에서 실험장치를 리용하여 강의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고 실천능력을 높여주는 교수방법을 비롯한 새 교수방법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그리고 교수경연을 심속있게 진행하여 교원들의 실력을 한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일류급학부건설에서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학생들이 첨단돌파의 꿈과 자신심을 가질수 있도록 통이 크게 설계하고 빈틈없이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명훈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서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출품한 많은 영화들이 상영된다.

축전기간 장편예술영화, 기록 및 단편, 만화영화경쟁, 특별상영, 홍보상영, 영화교류회가 진행되게 된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열리게 될 축전은 세계 진보적영화예술인들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단들 귀국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였던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조선련계려행사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중국국가신문출판서대표단, 중국대북도서출판협회대표단, 로씨야기초연구기금대표단, 이클레이동아시아지역본부대표단이 갔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주체사상국제연구소부리사장일행,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대표단,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뽈스까 와르샤와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알따이공화국지부 위원장, 로씨야 다게스딴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국제빙상호케이련맹대표단이 떠나갔다

화젤 레네 니콜라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빙상호케이련맹대표단이 14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체육성 부상 황상호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호평받는 소형강냉이탈곡기

평성시 봉학남새전문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김현철동무가 창안제작한 이동식소형강냉이탈곡기가 농장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 탈곡기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 로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는 현실조건에 맞게 설계제작됨으로써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우선 무게가 20여kg밖에 되지 않아 그 어디나 손쉽게 옮겨가며 낟알털기작업을 할수 있다. 또한 한명의 로력만 있으면 한시간에 수백kg의 강냉이이삭들을 털어낼수 있다. 동력은 1.5kW전동기만 있으면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이 탈곡기는 사람들이 손으로 강냉이이삭에서 알들을 떨어내는 방법에서 착상하고 설계제작하였다. 즉 강냉이이삭을 탈곡기의 입구에 넣으면 끝이 먼저 째여지고 여러 기계장치들이 동작하면서 비빔식으로 강냉이알들을 이삭에서 털어내게 되였다.

이 기계가 농장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비결은 로력이 절약되는데도 있지만 낟알털기과정에 강냉이알들은 물론 송치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데 있다.

이 탈곡기는 지난봄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출품되여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1등으로 평가되였다.

김현철동무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후에도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오랜 농장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탈곡기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을 이어왔다.

농장일군들도 그의 창안제작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힘껏 떠밀어주었다.

우리의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들이 현실에 길이 들어가 농장원들의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에 도움이 되는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박영진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청년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체육단, 정주청년체육관에서 7일에 각각 시작된 정구 남, 녀경기와 권투 남, 녀경기가 16일, 22일에 끝나게 되며 청춘거리 송구경기관에서 4일에 시작된 송구 남, 녀경기가 18일에 결속된다.

17일부터 21일까지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는 기계체조 남, 녀경기가, 18일부터 22일까지 청천강체육단에서는 씨름경기가 각각 있게 된다.

수구 녀자경기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배구 남, 녀경기가 남포체육관에서 18일에 각각 시작된다.

광복거리에서는 마라손 남, 녀경기가 21일에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대동강반에 울리는 인민사랑의 새 노래

누구나 터치는 찬탄의 목소리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솟아났다.

그 이름도 유정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각종 민물고기와 바다물고기 실내못들과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 수산물가공품매대들이 꾸려져있는 이 식당은 우리 인민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펄펄 뛰는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즉석에서 료리하여 봉사할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그른히 갖춘 현대적인 급양봉사기지이다.

어제는 창전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와 쑥섬의 과학기술전당, 오늘은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더불어 우리의 대동강반에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여나는 인민사랑의 새 노래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사철 우리 인민들이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와 수산물가공품들을 맛보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그날은 지난 6월 8일이였다.

맑고 푸른 대동강에 인민의 행복을 가득 싣고 두둥실 떠가는 흰 베이렌듯 낮에는 멋들어진 현대미를 한껏 뽐내던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은근하면서도 세련된 불장식으로 강반의 짙어가는 어둠을 황홀하게 밝히고있던 그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기별도 없이 이 식당을 찾아주시였다.

하루빨리 완공된 수산물식당을 보여드리고싶어 그이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건만 이처럼 밤길을 달리시여 너무도 뜻밖에 찾아주실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식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올린 식당건설자료를 보고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몸소 식당이름을 뜻깊게 지어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1층에 꽉 들어찬 실내못들, 못들에서 옥실거리는 고급어족들, 꼬리치며 노니는 물고기들이 발밑으로 환히 들여다보이는 특색있는 카운터며 철갑상어회국수, 련어회국수, 룡정어회국수 등을 봉사하는 국수식사실, 고급어족으로 만든 향료리를 전문봉사하는 황금해식사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전경이였다.

갖가지 수산물가공품보관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2층의 가공품매대들은 또 얼마나 멋들어진것인가.

가정적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족식사실이며 초밥식사실, 동양료리식사실, 서양료리식사실 그리고 민족저정서가 진하게 안겨오는 민족료리식사실, 봄맞이식사실, 주방칸, 커피봉사실, 부페트식사실…

머지않아 모든것이 독특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게 꾸려진 이 훌륭한 봉사기지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를 맛보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시종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처럼 기뻐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시울은 저도 모르게 뜨거워올랐다.

돌이켜보면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던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평양시에 물고기식당을 하나 크게 잘 꾸려놓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도 봉사해주고 산 물고기도 팔아주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이듬해에는 몸소 그 진척정형도 알아보시고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식당부지도 결직하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또 그 이듬해에는 수산물식당을 세계적수준에서 손색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끝끝한 군인건설자들도 보내주시고 식당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우고 수준있는 료리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21세기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완공되였다.

하지만 사철 우리 인민들이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와 수산물가공품들을 맛보게 하시려 바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인민들이 기뻐할 또 하나의 큰일을 해놓았다고 건설자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나라에 일떠선 인민봉사기지들가운데서 옥류관이 20세기의 대표작이라면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21세기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리고 수산물식당을 인민봉사기지답게 잘 운영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하루빨리 수산물식당을 개업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자정이 훨씬 넘도록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수산물식당을 다녀가신 후에도 수십명의 수준있는 료리사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드디여 지난 7월말부터 문을 열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깃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해 격정에 넘쳐 전설처럼 이야기하고있다.

정녕 우리 인민의 문명의 세계에 자리잡기 시작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지금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전체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수산물식당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펴나는 훌륭한 인민봉사기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쏟고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그야말로 안팎으로 멋쟁이입니다.》

대동강기슭에 21세기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으로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도 그칠새없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이 터치는 고마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우리는 여기에 일부 담는다.

《텔레비죤화면에서 낮은 밤 이곳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옵고 격정을 금치 못한 우리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뜻을 정히 받드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그리며 맛좋은 룡정어랑을 어기 황금해식사실에서 맛보고 갑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3일째 계속 찾아옵니다. 너무도 황홀하고 멋있어 무엇이라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곁이 있어 이런 훌륭한 식당에서 난생처음으로 철갑상어회국수를 맛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가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도 봉사자로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담뿍 담긴 인민의 식당에 찾아와서 감개무량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가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모든것이 세계적수준이상으로 꾸려지고 봉사수준도 최고, 그 맛은 최고중의 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최고입니다. 일본에 가서 널리 소개선전하겠습니다.》

《조국인민들이 이처럼 훌륭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것을 보니 역시 우리 조국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마련해준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맛이 없고 봉사도 우아하여 꼭 다시 오고싶습니다. 봉사원들도 대단히 매력있습니다!》

《이 식당의 음식봉사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맛있는 생선료리를 하시려면 이 식당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최상의 수준으로 마련된 또 하나의 인민의 극락에서 최상의 봉사와 최고의 료리를 맛보았습니다.》

정녕 끝이 없는 고마움과 찬탄의 목소리는 그대로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 대한 벗들의 경탄과 부러움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걸음마다 남기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실내용보도블로크로 바뀌여진 바닥타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1층을 돌아보실 때였다.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실내못들이 꽉 들어찬 식당 1층의 전경은 참으로 볼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 그처럼 기뻐하시니 동행한 일군들도 모두 기거에만 심취되여 연해연방 감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을 세심히 살펴보고계시는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타일을 깔았는데 이런데는 봉사과정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울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실내용보도블로크를 물매지게 깔아주어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까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옥의 티가 일군들의 눈에 비껴들었다.

오직 한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만은 아직 물 한방울 떨어지지 않은 바닥을 보시면서도 앞으로 봉사과정에 인민들이 느낄수 있는 자그마한 불편까지도 찾는에 찾아내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실내못의 주변바닥에 깔았던 타일은 실내용보도블로크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새로 생겨난 자라못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는 평양자라공장에서 이사를 온 자라들이 들어있는 못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식당을 찾으신 당시에는 이 자라못이 없었다.

그날 1층의 실내못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득 식당에 자라못도 만들어놓고 자라들을 가져다넣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놀라움은 자못 컸다. 사실 식당건설이 완공된 후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양어장들에서 키워낸 철갑상어며 련어, 룡정어, 철색송어를 비롯한 갖가지 고급어족들을 실내못들에 가져다넣으면서도 평양자라공장에서 양식하고있는 자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평양자라공장을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켜주시고 오늘은 이처럼 훌륭하게 일떠선 수산물식당에서 자라료리도 봉사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또다시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정녕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새로 생겨난 자라못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고싶으시여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따뜻하고 융심깊은 사랑이 안아온 류다른 자라풍경이 아니랴.

몸소 가늠해보신 보관장온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2층에 자리잡고있는 수산물가공품매대에는 수산물가공품보관장들이 그윽하게 갖추어져있다.

랭동가공한 물고기들과 물고기통졸임, 훈제를 비롯한 가공품들이 꽉 들어차있는 수산물가공품보관장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느 한 보관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훌륭한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섰습니다.》

푸른 물결을 헤가르던 《대형려객선》이 풍치수려한 청류벽의 정경에 매혹되여 잠시 대동강기슭에 정박하였는가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며 로동당시대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솟아오른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저 멀리 옥류교에서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어서 오라 반기는것만 같았다.

그칠새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그 《대형려객선》에 오르니 희한한 전경이 우리앞에 펼쳐졌다.

시원하게 락트인 홀에 다양한 모양으로 짝 들어찬 실내못들에서 룡정어, 철갑상어, 다랑어 등 여러가지 희귀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오가는 광경도 볼만 하지만 남성종업원이 들어올리는 수십kg짜리 철갑상어가 요동을 치면서 일으키는 물보라에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와—와—한성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였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수족관같다거니, 물고기박물관같다거니 하면서 저저마다 터치는 감탄과 놀라움의 목소리들 또한 우리를 절로 흥그럽게 해주었다.

신비로운 산물고기세계에 심취되여 걸음을 미처 옮기지 못하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식당의 한 일군은 이곳의 철갑상어들가운데는 무려 200kg이나 되는것도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육중하고 검푸른 몸뚱이를 뽐내듯 좌우로 흔들면서 한마리의 철갑상어가 유유히 우리앞에 헤염쳐오는데 그 모양이 정말 장관이였다.

잊지 못할 추억이 밀물처럼 솟구쳐올라 우리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다.

주체98(2009)년 6월의 어느 일요일,

이날 산중의 바다를 련상케 하는 신창의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푸른 버들이 휘늘어진 못가에서 희귀한 철갑상어들이 헤치여 흐르는 광경을 기쁨속에 보시며 흐뭇하신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오로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천만고생을 다 겪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중에 고이 간직하셨던 인민의 리상을 담으시여 시를 읊으시듯 터놓으시던 그 뜨거운 음성이 귀전에 울려오는듯 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기상이런듯 바다에 보금자리를 폈던 철갑상어들,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뀌는 시대의 숨결을 반영하였던 그날의 철갑상어들이 오늘은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여기 대동강기슭에 자기의 새 주소를 정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절로 숭엄해지는데 이곳 일군은 우리에게 200kg짜리 철갑상어를 비롯하여 특별히 큰 4마리의 철갑상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느 한 양어장에 가셨을때 보아주셨던 철갑상어들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련어, 룡정어, 철색송어못을 거쳐 펄게와 큰삼조개, 가재미 등 바다동물들이 자라고있는 실내못을 지나 철갑상어회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회국수를 봉사하는 국수식사실에 들어섰다.

얼빨빨한 철갑상어회를 꾸미로 척 올려놓고 신선한 오이와 배 등으로 구색을 맞춘 농마국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 국수떠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며 온갖 성의를 다해가는 이곳 봉사자들의 모습도 무척 인상깊어 아이건 어른이건 할것없이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시종 일관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다.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뒤에 남기며 우리는 실내못우에 특색있게 자리잡은 카운터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푹신한 회전의자에 앉아 각종 음료들과 함께 초밥과 물고기회 등 다양한 료리들을 봉사받고있었는데 철갑상어들이 발밑에서 헤염쳐다니는 광경이 볼수록 희한했다.

참으로 식당의 그 어느곳이나 장관이요, 넘쳐나는것은 행복의 웃음소리여서 들리는 곳마다 떠나고싶지 않고 보는것마다 새겨두고 싶은것이 우리의 심정이였다.

우리는 이윽하여 대동강의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로대로 걸음을 옮겼다.

황금해식사실에서 펄펄 끓는 룡정어랑으로 점심식사를 방금 끝낸 사람들이 평양의 일만경치를 무감하며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여기서 이들은 대동강의 풍치만이 아닌 보다 휘황찬란할 문명강국의 래일도 함께 부감하는듯 얼굴마다에 시종 흐뭇하고 만족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로대에서 강변을 내려다보니 이곳을 찾으시였던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잘 꾸려놓았다고 치하해주신 정박장도 한눈에 안겨왔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볼수록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끝없이 파도쳐올 래일의 행복을 약속하며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만복이 여기 락원의 강, 대동강기슭에 보란듯이 정박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참으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야말로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어떻게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였다.

그 위대한 사랑속에 더더욱 환희로운 내 조국의 미래를 가슴뿌듯이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성민
사진 본사기자 최홍성

숭고한 뜻 심장에 새기고

지금도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새로 건설된 우리 식당을 찾으시여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훌륭한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섰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몸소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일군, 종업원들이 식당관리운영을 짜고들어 21세기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펴나는 훌륭한 인민봉사기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쏟고 바쳐가고있다는 것과 함께 영업규률을 엄격히 세워 식당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봉사성을 높이는것은 식당이 인민의 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날로 높아가는 음식문화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식당에서는 봉사자들속에 봉사활동에서 인민성과 친절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있다.

우리는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령도업적단위답게 멸사복무정신으로 봉사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지배인 최현길

더 좋아질 우리의 래일을 여기서 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훌륭한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섰습니다.》

푸른 물결을 헤가르던 《대형려객선》이 풍치수려한 청류벽의 정경에 매혹되여 잠시 대동강기슭에 정박하였는가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며 로동당시대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솟아오른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저 멀리 옥류교에서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어서 오라 반기는것만 같았다.

그칠새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그 《대형려객선》에 오르니 희한한 전경이 우리앞에 펼쳐졌다.

시원하게 락트인 홀에 다양한 모양으로 짝 들어찬 실내못들에서 룡정어, 철갑상어, 다랑어 등 여러가지 희귀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오가는 광경도 볼만 하지만 남성종업원이 들어올리는 수십kg짜리 철갑상어가 요동을 치면서 일으키는 물보라에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와—와—한성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였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수족관같다거니, 물고기박물관같다거니 하면서 저저마다 터치는 감탄과 놀라움의 목소리들 또한 우리를 절로 흥그럽게 해주었다.

신비로운 산물고기세계에 심취되여 걸음을 미처 옮기지 못하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식당의 한 일군은 이곳의 철갑상어들가운데는 무려 200kg이나 되는것도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육중하고 검푸른 몸뚱이를 뽐내듯 좌우로 흔들면서 한마리의 철갑상어가 유유히 우리앞에 헤염쳐오는데 그 모양이 정말 장관이였다.

잊지 못할 추억이 밀물처럼 솟구쳐올라 우리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다.

주체98(2009)년 6월의 어느 일요일,

이날 산중의 바다를 련상케 하는 신창의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푸른 버들이 휘늘어진 못가에서 희귀한 철갑상어들이 헤치여 흐르는 광경을 기쁨속에 보시며 흐뭇하신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오로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천만고생을 다 겪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중에 고이 간직하셨던 인민의 리상을 담으시여 시를 읊으시듯 터놓으시던 그 뜨거운 음성이 귀전에 울려오는듯 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기상이런듯 바다에 보금자리를 폈던 철갑상어들,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뀌는 시대의 숨결을 반영하였던 그날의 철갑상어들이 오늘은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여기 대동강기슭에 자기의 새 주소를 정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절로 숭엄해지는데 이곳 일군은 우리에게 200kg짜리 철갑상어를 비롯하여 특별히 큰 4마리의 철갑상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느 한 양어장에 가셨을때 보아주셨던 철갑상어들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련어, 룡정어, 철색송어못을 거쳐 펄게와 큰삼조개, 가재미 등 바다동물들이 자라고있는 실내못을 지나 철갑상어회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회국수를 봉사하는 국수식사실에 들어섰다.

얼빨빨한 철갑상어회를 꾸미로 척 올려놓고 신선한 오이와 배 등으로 구색을 맞춘 농마국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 국수떠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며 온갖 성의를 다해가는 이곳 봉사자들의 모습도 무척 인상깊어 아이건 어른이건 할것없이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시종 일관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다.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뒤에 남기며 우리는 실내못우에 특색있게 자리잡은 카운터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푹신한 회전의자에 앉아 각종 음료들과 함께 초밥과 물고기회 등 다양한 료리들을 봉사받고있었는데 철갑상어들이 발밑에서 헤염쳐다니는 광경이 볼수록 희한했다.

참으로 식당의 그 어느곳이나 장관이요, 넘쳐나는것은 행복의 웃음소리여서 들리는 곳마다 떠나고싶지 않고 보는것마다 새겨두고 싶은것이 우리의 심정이였다.

우리는 이윽하여 대동강의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로대로 걸음을 옮겼다.

황금해식사실에서 펄펄 끓는 룡정어랑으로 점심식사를 방금 끝낸 사람들이 평양의 일만경치를 무감하며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여기서 이들은 대동강의 풍치만이 아닌 보다 휘황찬란할 문명강국의 래일도 함께 부감하는듯 얼굴마다에 시종 흐뭇하고 만족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로대에서 강변을 내려다보니 이곳을 찾으시였던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잘 꾸려놓았다고 치하해주신 정박장도 한눈에 안겨왔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볼수록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끝없이 파도쳐올 래일의 행복을 약속하며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만복이 여기 락원의 강, 대동강기슭에 보란듯이 정박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참으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야말로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어떻게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였다.

그 위대한 사랑속에 더더욱 환희로운 내 조국의 미래를 가슴뿌듯이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성민
사진 본사기자 최홍성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자주의 강국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인양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나붓기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갈 불타는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주로 필승불패하는 자주의 강국이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왔다.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전통과 강의한 정신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낳았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의 발전행로에 아로새겨진 모든 승리와 눈부신 변혁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자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민족의 운명개척과정은 곧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초석이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력사는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빛나게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대표자이며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기치이다. 공화국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것을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민족자주위업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떨쳐지게 된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존엄은 바로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사상적오물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결단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통성번영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자주정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나라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보루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부강조국건설과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시대를 펼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기세차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는 온 겨레에게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은 항상 자주적립장을 고수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이 조국통일을 가장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온것은 자주에 민족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이 있고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통일이 있기때문이다.

올해에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 파국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족의 정론과 대용단, 특출한 정치실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을 통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정세가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만통일도전도 물리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자주정치의 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진두에 서게시기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은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며 통일강국에 대한 겨레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박 철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본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인민의 단결된 위력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끼쁘로스조선문화친선협회 위원장 아다모스 까찬토니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단결의 위력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번에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에 참가하였다.

평화의 벗,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진실한 벗인 우리가 국제행진에 참가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오늘 행진 전기간 세계에 조선은 하나다, 조선에 대한 제재는 중지되여야 한다는 심정을 담아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힘껏 웨쳤으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며칠전 판문점을 또다시 참관하였는데 이곳을 찾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조선인민이 느끼는 감정과 꼭같다고 할수 있다.

나의 조국 끼쁘로스 역시 분렬되여있기에 나는 조선인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어떤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올해에 북남수뇌분들께서 판문점에서 첫 상봉을 하시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신 사실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이 희망의 상징으로 될수 있다는 기대를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판문점이 앞으로 통일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지나간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되기를 바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의 통일이 이룩될 그날까지 조선인민과의 문화친선 및 련대성활동을 계속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업을 지지하여 터져나오는 웨침은 앞으로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끊임없이 메아리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 나라에 온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이며 교수 박사인 윅토르 보가또브는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불과 두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변모된 평양의 모습이 그를 무척 흥분시켰던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줄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고층건물들, 친절하고 명랑한 인민들…

2년전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때 윅토르 보가또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동원, 총집중되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슴뜨거운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만복을 다 받아안은 행운아들이라고 격정을 터놓았었다.

하기에 단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또다시 평양길에 올랐던것이다.

인구가 많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아시아의 훌륭한 자연풍경을 보여주는 특색있는 작품을 준비한 그는 이 선물이 예술을 사랑하시는 김정은각하의 마음에 꼭 들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은 로동을 사랑하고 자기 력사를 지킬줄 알며 조국을 보위할수 있는 준비가 되여있는 인민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인민은 어렵고 힘든 시기들에도 자체로 난관을 뚫고나갔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갈것이다, 왜냐하면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이 있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있기때문이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은 그는 조선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몰라보게 변모된 평양의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확신한다

나날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속에 보다 눈부시게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보고 터치는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수 있었다.

그가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찾아올 때에는 또다시 비약한 우리 조국의 새 모습을, 사회주의의 변함없는 참모습을 보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안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조미협상의 진전에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내 불순세력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에 악용해보려고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을 기화로 《북회의론》을 떠들어대며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비난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루비오와 파인스타인, 가드너를 비롯한 미상원의 보수적인 인물들은 《북이 비핵화를 할것으로 애당초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확인되고있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과의 협상에 큰 희망을 진적이 결코 없다.》는 등의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담당 조정관 세이모어를 비롯한 전직관리들도 《북조선과의 비핵화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여있었다.》느니, 《북의 비핵화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느니,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있다.》느니 하며 조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온갖 광설들을 다 내돌리고있다.

말하자면 조미대화와 북의 비핵화의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환멸을 금할수 없게 하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직후에 벌써 미국내에서 조미합의를 놓고 《약속을 위한 약속》이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심사뒤틀린 소리들이 울려나오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사이에 일어난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이니 그럴수도 있을것이라고 리해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조미대화회의론》, 《북회의론》은 잦아드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미리를 쳐들고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수 없다느니, 핵자산에 대한 은폐작업을 하고있다느니,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느니 하는 형형색색의 피설들을 그칠 사이없이 고안하여 내돌리고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미국정가에 북조선과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도 폭넓고 깊이 자리하고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내에서 정치적전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론쟁을 하든 의회투쟁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부문제이다.

하지만 《회의》니, 《진정성》이니 하는 당치않은 수작질로 우리를 걸고들며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나서는데 대해서는 묵인할수 없다.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앞에서 한 조미쌍방의 합의이다.

더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은 조미수뇌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일치를 보고 서명을 한 량국간의 최고급의 공식합의문건이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건도,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말하는 국가간 신뢰나 국제적신뢰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혹시 우주인과 한 약속이라면 신뢰하겠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김바에는 대통령직은 무엇때문에 두며 과연 그러한 미국과 누가 상대하자고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할수 없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수 없고 회의심을 가지게 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90여일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우리는 핵시험 및 로케트시험발사전면중지, 핵시험장폐기, 미군유골송환 등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립장을 발표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얼빈을 토해내고있다.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수 있고 미국에 대해 신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는 결코 말로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저들이 할바는 하지 않고 떡을수록 남남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도적인 요구를 내대고있는것이다.

종전선언문제를 놓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과제이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에 국제사회도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있을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수 없지 않는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은 미국이며 종전선언에 제일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싶다고 한데 대해서만 알고있지 북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결가마끝는 격으로 한사코 선비핵화조치를 내들고 종전선언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입이 열개라도 우리에 대해 회의감이니 신뢰니 하고 말할 체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미국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과 전직관료들이 이처럼 자기를 모르고 분수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보수정객들은 아직도 입만 벌리면 북이 협상탁에 나온것은 강력한 제재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재에 못 견디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것이다.

실로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정객들이 이다지도 암둔하고 용렬한가 하는 생각에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대세에 어두울대로 어둡고 판단이 어리석다보니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우리의 핵에 대해 마치 전매국의 적산을 처리하듯 해보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무지스러워진다고 초대국이라는 관념에만 집착해있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행동거지가 꼭 그 격이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음아독존식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에 대해 공부를 더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에 아메리카제국의 제면도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사죄문과 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오유도 참고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호상존중과 신뢰를 떠난 대화는 벌써 대화가 아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미국을 인내성있게 상대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남측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석상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려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한다면 하는것이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것이 우리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보면 북조선만 보이지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렬한 행태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수 없는 국가로, 고립되고 폐쇄된 나라로 전락시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조미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궤도에 들어섰다.

대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거품과 잘은 존재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뒤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여 결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할 일을 못하고 판게개선의 동력이 약화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그 누구에 대한 《회의론》을 떠들어대며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을수록 정치적야욕추구에 피눈이 되여 돌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 남 진

습근평주석 교육중시기풍확립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10일 전국교육대회에서 연설하면서 교육중시기풍을 확립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교원들이 지식과 사상, 진리를 전수하고 새 인간을 가꾸어야 할 시대적중임을 걸머지고있다고 하면서 전당과 전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원들의 정치적지위와 사회적지위, 직업적지위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광범한 교원들이 교수사업 및 인재육성에서 당과 인민의 위업에 새로운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염병방지노력

남아프리카정부가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밑에 2030년까지 나라에서 결핵을 완전히 없앨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정부는 이 목표실현을 위해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일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상식

피라미드가 많은 수단

사람들은 피라미드라고 하면 먼저 에짚트를 생각한다. 그것은 에짚트의 피라미드가 훌륭하고 높은 건축술과 정밀한 돌가공술, 조각술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때문이다. 이런 피라미드는 에짚트에서 적지 않게 발굴되였다.

사람들은 에짚트의 피라미드를 보기 위하여 이곳을 수없이 찾고있다.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밀집되여있다. 그 수는 에짚트보다 훨씬 많은 250개에 달한다고 한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광활한 사하라사막에 있다.

에짚트의 웅장한 피라미드와 달리 수단의 피라미드는 비교적 작기때문에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운다.

《작은 피라미드》들은 B.C. 7세기—B.C. 3세기에 건설되였다.

《작은 피라미드》는 에짚트의 피라미드와 건축형식뿐아니라 건설재료에서도 차이난다. 이 일대에는 화강석이 없기때문에 《작은 피라미드》는 외부가 사암으로, 내부는 모래와 젠자갈로 건설되였다.

수천년동안 비와 바람의 세례를 받으며 대다수 피라미드의 겉면은 이미 풍화되였다. 더우기 사암구조는 에짚트피라미드의 돌구조보다 견고하지 못하기때문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이미 허물어졌다.

이밖에도 일부 피라미드들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이딸리아의 도굴자들이 《작은 피라미드》들을 발견한 후 40여개 피라미드의 정점을 파괴하고 내부에 있던 많은 량의 금과 보석들을 훔쳐갔다.

2011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작은 피라미드》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그때부터 수단은 피라미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우는 한편 일부를 복구하였다.

본사기자

이란최고지도자 미국의 음모들이 좌절되였다고 주장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9일 중동에서 미국의 음모들이 저항에 부딪쳐 좌절되였다고 밝혔다.

그는 수리아와 이라크, 레바논의 정치정세가 미국의 지역정책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이라고 하면서 이란이 자기의 혁명적리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여 미국의 기도를 좌절시켰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것을 일본에 요구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가 4일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종결 7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에서 진행한 기념행사에 대해 북방의 4개 섬에서 로씨아의 군사적주둔이 강화되는것은 일본의 립장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은 5일 공보를 발표하여 일본은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보는 《일본고위정객의 발언은 도꾜가 항시적으로 망각속에 빠져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에서 군국주의일본이 논 역할을 기억속에서 지워버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그리고 유엔헌장에 기초한 현시대 세계질서의 현실을 무시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줄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과거에서 마땅한 교훈을 찾기를 집요하게 바라지 않는 일본측의 태도가 정화조약문제해결을 위한 로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본다고 공보는 강조하였다.

이란외무상 미국의 위협책동 비난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위협책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저들의 전범죄를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위협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불법무법의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언제면 세계가 더는 참지 못하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여 정상국가로 행동하도록 할것인가고 개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력증산노력

인디아가 2022년까지 태양열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1억kW로 늘일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태양열에네르기생산비용을 줄이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대외무역 증가

몽골에서 올해에 들어와 8월까지 대외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증가하였다.

이 기간 수출액은 13.9% 늘어났다고 한다. 10일 이 나라 세관당국이 밝혔다.

자동건설

에짚트에서 수에즈운하밑을 가로지르는 2개의 차굴건설을 추진시키고있다.

본토와 시나이반도를 련결하는 차굴들은 올해 7월에 굴착공사를 끝냈으며 2022년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차굴들의 길이는 각각 5.82km, 3.92km에 달한다.

차굴들이 완공되면 운하주변지역들의 교통운수와 대외무역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한다.

폐기물발전소 건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최근 오물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발전소가 준공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폐기물발전소는 2014년에 착공되였으며 하루 오물처리능력은 1 400t에 달한다고 한다.

오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 의한 증기로 타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폐기물발전소는 거대한 오물적재장옆에 건설되였다. 발전소옆의 이 오물적재장은 지난해에 오물산이 무너지면서 110여명이 사망한 곳이라고 한다.

수출액 증대

튜니지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녀성보호조치

마로끄에서 12일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2월 중순 국회의 비준을 받은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녀성들을 상대로 각종 폭력행위를 저지른자들에게 해당한 형벌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녀성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취해졌다고 한다.

아랍나라들 팔레스티나를 적극 후원할 립장 천명

아랍국가련맹 성원국 외무상들이 11일 까히라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를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후원하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에 대한 자금제공을 중단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배격하고 아랍나라들은 약 530만명의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을 방조하며 52만 6 000명의 팔레스티나학생들의 교육조건을 보장하는 기구의 사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아랍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처사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기구가 유엔총회결의들에 준하여 자기의 의무를 계속 리행하고 자금원천을 확보할수 있도록 협력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4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송달법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